

원희룡 지사 사퇴 시기 초미 관심

대선 경선구도 상위 선점 위해 7월 사퇴설 '솔솔' 현직으로 후보 확정 시 업무 소홀 등 비판도 염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퇴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도전으로 인한 지사직 '중도 하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내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빠르면 오는 7월 사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오는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 놓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현재처럼 제주-서울을 오가는 행보를 유지할 경우 도정 업무 소홀 비판과 경선 초반 기선잡기 실패란 짐을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11월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오는 7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7월 12일부터)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입후보 제한직 등의 사직 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하지만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할 경우 바로 사직을 해야 한다.

원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직할 경우 10월 6일(10월 첫째주 수요일)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고,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직할 경우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과 잔여임기를 감안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앞으로 예

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내에서 갈수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사퇴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에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 지사가 언제 사퇴를 하더라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궐선거 미실시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물놀이 즐기는 어린이들 22일 낮 최고기온이 26.9°C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가족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때 이른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한일해협 인접 시·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어제 부산서 대응방안 마련 위한 실무협의회 가져 제주·부산·울산·경남·전남 참여... 협력과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가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한일해협에 접해있는 5개 시·도 담당과장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5개 시·도의 공동 대응방

안과 협력과제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5개 시·도는 지난해 10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실무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1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지난해 12월 22일 후쿠

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일해협에 인접한 시·도와 협력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22일 18시 기준 확진 689(6)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환경·개발·재정분권 제도개선 논의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전담TF 3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환경·개발분야 및 재정분권분야 특별 전담 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개발 분야 회의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마련을 위한 제주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활용 제도화 방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현

원학(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소 대표, 김

태희 흥익대학교 교수, 강진영 제주 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한다.

자치재정분야 회의에서는 ▷제주

에 부합되는 신규세원 발굴방안 ▷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방안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우대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고대로그자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순항'

농기계 임대 등 4개 공공서비스에 총 123억 투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권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총 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4년차인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내 5개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주민현의체가 주체가 돼 각 권역별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41억·성산읍·남원읍)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24억·서귀포시 동지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41억·애월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제주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17억·조천읍·구좌읍)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서귀포시 동부 권역(성산·남원)을 중심으로 표선면에 분점을 신축해, 지리적 여건상 농기계 임대 및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트랙터 및 굴삭기, 파쇄기 등 총 17종·91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은 문화

서비스 수준이 낮고 수요가 높은 서귀포시 동 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수요자(동아리) 및 공급자(문화예술 강사), 공간(교육장)을 매칭하고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장·단기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총 113개 프로그램에 110명의 강사·1465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59개의 교육장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은 제주시 서부권역(애월·한경)과 서귀포시 서부권역(대정·안덕)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서비스(2대)를 이용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7개 중산간 지역 9102명의 어르신 및 장애인들이 한방진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제주도는 권역별 시범사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균형발전 과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발굴 TF, 주민현의체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의 힘으로 성장한 지난 1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낸 2020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농업인, 국민이 있습니다. 2021년도 농업인인과 국민을 위한 혁신으로 더 새롭고 희망찬 농협이 되겠습니다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2020년 농협이 한 일

- 디지털 혁신**
 - 디지털 조직으로 변화 및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 지원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 법농협 로보어드바이저(RPA) 구축
 - 농협형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추진
- 유통 대변화**
 - 유통혁신 방안 마련 및 최첨단 유통 플랫폼 구축
 -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
 -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오픈
 - 디지털물류처리센터(DFC) 구축
 - e하나로마트 당일 배송체계 마련
- 코로나19 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지친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든든한 지원
 - 공적마스크 공급창구 역할 수행
 - 학생 가정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 영농인력 공급 및 화훼농가 지원
 - 코로나19 피해 농·소상공인 금융지원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 회장 김성범

대정농업협동조합장 이창철
 위미농업협동조합장 김영근

농협서귀포시지부 지부장 현학렬

안덕농업협동조합장 유봉성
 남원농업협동조합장 김문일

중문농업협동조합장 김성범
표선농업협동조합장 고철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장 현영택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 강석보

효돈농업협동조합장 백성익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용관